

국가관 관객 유치경쟁 '여수 올림픽'

해외여행권까지 내걸고 길거리 홍보전

2017년·2020년 박람회 유치전도 치열

해외여행 상품권 나눠주고, 뜨거운 길거리 홍보전에 2017년 박람회 유치 경쟁까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을 사로잡기 위한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뜨겁다. 박람회는 올림픽처럼 참가국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지만 더 많은 관람객에게 자국을 소개하려는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기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의 자존심 대결도 갈수록 불만해지고 있다.

16일 태국관은 자국관 관련 사진을

찍어 태국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관람객 중 1명을 뽑아 태국 왕복 항공권과 10명에게는 플라로이드 카메라, 1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을 각각 준다.

싱가포르관도 매주 토요일 관람객 중 한 명을 뽑아 3박4일 동안 싱가포르를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과 호텔 숙박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이벤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고, 지난주 경품 추첨에서는 수원에서 온 30대 부부가 행운을 얻었다.

또 네덜란드 등 국가관들도 '국

가의 날' 행사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영업 전략'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한 국가관 홍보 담당자는 "관람객 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등 국가관들의 관람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전시관 앞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혹시 '인기 있는 국가관이다'는 입소문이 날까 싶어, 일부러 대기 시간을 10분가량 늦추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0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47개 개별 국가관은 자신들이 손수 전시관을 꾸며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관들 간 경쟁은 더욱 뜨겁다.

또 '국가'의 날' 등에 자국 정상과 장관 등 VIP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어 관람객 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때아닌 박람회 유치 경쟁도 펼쳐지고 있다. 2017년 박람회 유치를 노리고 있는 벨기에와 카자흐스탄은 올해 말 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여수에서 자국의 문화와 후보 도시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등록박람회 이후에 열리는 2020년 개최권 확보를 위한 물밑 유치전도 한창이다. 도전장을 낸 곳은 러시아, 터키, 태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모두 5개국으로 여수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지난 11일 타이완을 출항해 요코하미를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크루즈 전용부두로 입항한 아시아 최고 유람선 '레전드호(Legend of the Seas)'에서 일본·대만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쇼 최대 크루즈 '레전드호' 입항

대만·일본 관광객 2000여명 몰려와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을 실은 호화 크루즈가 잇따라 여수에 입항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 유람선 '레전드호'(7만t)가 대만과 일본 관광객 2000여명을 싣고 1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상륙했다.

이 배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22만t)인 '오아시스호'를 보유한 세계 굴지의 크루즈 선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운영한다. 레전드호는 TTG(Travel Trade Gazette) 트래

블 어워즈에서 4년 연속 '아시아 최고 크루즈'에 선정됐다. 전장 264m, 전폭 32m의 크기이며 승무원 734명, 승객 정원 2066명이다.

크루즈 내에는 800명이 한꺼번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극장, 15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로미오&줄리엣 식당을 비롯해 압력등반, 미니골프 코스, 2개의 선상 수영장 등이 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레전드호 승객들은 주제관 등 전시관과 빅오쇼를 관람

한 뒤 이날 밤 11시에 떠난다.

앞서 14일에도 일본 관광객 400명을 태운 퍼시픽비너스호가 박람회장내 크루즈 부두에 입항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는 모두 5척의 크루즈가 1만여명의 관광객을 싣고 10차례 여수를 찾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을 도는 크루즈의 성격상 이들 배를 타고 온 관람객들이 여수에 머무는 시간은 6시~30시간 안팎이어서 지역 관광 상품과의 연계 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덜덜덜'... 한파 체험 1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후변화관에 마련된 남극추위 체험관에서 영화 10도(체감온도 약 15도)의 한파를 체험하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거북선 타고 박람회 즐기세요"

"거북선 타고, 여수세계박람회 즐기세요"

전날도는 16일 "거북선형 유람선을 활용해 박람회 관람객을 해상으로 수송하고 오동도·돌산도·향일암 일대 관광 상품과도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박람회 관람객을 수송하기 위해 해남지역에서 운항하는 울돌목거북선과 지난해 건조한 여수거북선 등 2척과 일반 선박 2척을 투입했다. 거북선형 유람선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한 선소 인근 웅천환승주차장과 돌산도 환승주차장에서 관람객을 태우

고 엑스포항까지 운송하고 있어 시내 교통 소통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밤에는 오동도·돌산대교·향일암 등 여수 인근 해상을 유람, 관람객에게 박람회장 인근 야경을 해상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 수송 인원은 1000명이며, 웅

천주차장에서 박람회장까지는 50여분이 소요된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박람회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통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람회장 폐막 후 재활용 해양기후변화대응센터로" 여수EXPO시민포럼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 후 박람회장을 국립해양기후변화대응센터로 재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EXPO시민포럼'은 16일 포럼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여수박람회의 성공 요소로 사후활용, 시민참여 등을 제안했다.

시민포럼은 "박람회가 의미 있고 성공하려면 주제 구현, 사후 활용, 도시 재생, 시민 참여 등이 중요하다"며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도 이런 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람회 성공 여부는 사후활용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 예로 쓰나미 등을 대비해 국립해양기후변화대응센터로 전시장 시설을 재활용한다면 자원절약과 박람회정신 계승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임민택기자 mtlim@

빛의만평 - 김중두

될해도 18代 만 닭지마라!

www.harmonykorea.go.kr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사회통합으로 희망시대를 열어갑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다음에 대한 인정... 서로 다른 가치와 생각들을 함께 소통하고 이해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사회통합을 이루고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룰때 대한민국의 행복한 희망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갑니다